

Is it possible to get a refund for a flooded used car that I bought without knowing?

Recently, heavy rain caused a large number of flooded vehicles. Flooded vehicles usually mean that the entire vehicle is submerged, but if the car's interior floor is filled with water, it is classified as an flooded vehicle.

Even if a submerged car is repaired,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failure and problems with many functions.

If the vehicle is in a "total loss" condition that has been lost overall due to flooding, the vehicle must be scrapped. If you violate this, you may be fined up to 3 million won in accordance with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Even if the vehicle is partially flooded, insurance companies recommend handling it as a total loss. However, due to the recent delay in vehicle shipments in the automobile industry and the high cost of vehicles, there are cases where flooded vehicles are repaired and sold secondhand.

As a way to distinguish submerged cars, there is a way to check vehicle maintenance entered by car maintenance companies through "Car 365" opera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Car History" provided by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You can check information such as maintenance matters, flooding, and insurance accidents.

However, this method is also confirmed only when the car repair company and the insurance company enter the information, so if the vehicle

does not enter the information, it may not be registered as an submerged car, so it is better to see and check the submerged car.

There are several ways to distinguish submerged cars when you check them with your own eyes. First, if the seat belt is pulled all the way to the end and the inside part is muddy or stained by wate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flooded car.

It can also be distinguished by pushing back the car seat to check if the parts that secure the seat are rusty or by checking the parts that do not normally contain water, such as wiring inside the engine room.

Can you get a refund if the car you bought was a submerged car even though you checked and purchased it?

If you buy a submerged vehicle without knowing it, you can get a full refund. According to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f the flooding is different from the notification,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within 30 days.

In additi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stipulate that when the flood is not notified, a repayment of purchase price or a compensation for the loss should be made if it is within one year of compensation period.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 관련기사 한국어 30면, 일본어 38면, 중국어 28면,
베트남어 14면, 타갈로그어 45면, 태국어 18면

야외 활동할때 조심하세요!

쭈쭈가무시 주의보 발령

9월에서 10월은 쭈쭈가무시증(Scrub Typhus)의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로 야외 활동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쭈쭈가무시증은 감염성 질환으로 진드기의 유충이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 먹은 부위에 검은 딱지가 동반된 궤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감염병입니다. 잠복기는 6~21일이지만 보통 10~12일 정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쭈쭈가무시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1~2일 이내에 빠르게 호전되나 그렇지 않으면 약 2주 동안 발열이 지속 되면서 합병증으로 뇌수막염, 난청, 이명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며 진드기가 달라붙어 쭈쭈가무시병을 옮길 수 있어 야외활동 후 진드기 제거 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 긴 옷, 긴 양말로 피부 노출을 줄이고 기피제나 진드기 방충제를 발라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야외활동 후 입었던 옷을 반드시 털고 세탁하며 샤워나 목욕을 통해 혹시 붙어 있을 수 있는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야외활동 후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2~3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쭈쭈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 관련기사 영어32면, 일본어 7면,
중국어 40면, 베트남어 46면,
타갈로그어 6면, 태국어 45면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채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채납 사실 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

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

계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채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 관련기사 영어41면, 일본어 9면,
중국어 3면, 베트남어 42면,
타갈로그어 35면, 태국어 33면